

목장 환경 개선... 낙농가의 굳은 의지로 소비자를 지향해야

"계절마다 꽃들로 아름답게 보존된 목장 경관은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줍니다. 하루하루 노력해 얻은 지식도 기술도 닦아서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도 목장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부르는 일이 끼어립니다. 젖소를 위해, 원유를 위해,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목장에서 일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목장내외 환경정비에 열심을 내 봅시다."

목장의 환경정비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떠 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꽃들로 조경을 멋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장의 환경정비는 '소비자로부터의 관점', '젖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 '식품위생', '안전'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라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식, 그런 일을 언제나 소비자가 보고 있다는 의식, 젖소를 쾌적하게 사양한다는 의식,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의식, 그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봅시다.(데어리 재팬 05년 7월호 벌책특집 '목장의 환경을 아름답게' 中)

우리 보다 한 발 앞선다는 일본은 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 단순히 아름다운 목



한창희
서울우유 낙농지원팀
기술지원과장

장 만들기 차원을 넘어서 누구를 고려한 목장환경 개선이며, 위생과 안전까지도 연결하는 깊이 있는 관점을 갖고 목장 환경개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은 곧 먹거리에 수반되는 '위생과 안전'을 따로 떼어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전제하고 이 글을 시작한다. 또한 이 사업이 지향하는 귀결점 역시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 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의 추진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소비자의 친농의식과 체험목장에 대한 수요가 점증 되어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체 반성을 통해 68년 낙농역사의 산증인인 서울우유가 누가 요구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그리고 보여줄 만한 목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조합원 낙농가 역시 'Well-being 낙농!, Green-Farm 실현'이라는 대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업에 동참하려는 자발적인 낙농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



끌어 낼 수 있었다. 올 4월까지 23개의 목장에서 계획서를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실무직원들이 자체적인 실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총 20개 목장이 1차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7월 중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개 목장에 대한 최종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에는 목장 조경전문가 및 조합원 낙농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목장방문과 컨설팅을 통해 신청목장에 맞는 환경을 꾸미기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목장 주변 조경 또는 화단조성, 진입로 나무식재, 잔디밭 조성, 조경석 조성 등등… 본 사업에 참여한 적극적인 낙농가들은 다양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큰 의의는 조합원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지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목장별로 예상 사업비용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고 원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낙농가의 의지가 강하고, 시설 및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목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목장 깨끗한 우유"라는 낙농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제고시키고, 정부의 친환경 낙농 육성정책(Clean Farm)에 가급적 빨리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중

1차 실사를 통해 20개 목장 선정…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세부계획 논의 예정

지난 4월까지의 실무직원의 실사를 통해 1차 추천된 목장은 3가지 주안점을 갖고 심사했다.

첫째, 외부 개방의사, 둘째, 목장 청결도, 셋째, 주변 경관이다. 선정 목장은 이 3가지 기준에서 "중" 이상의 의견을 나타냈고, 목장 환경



〈표1〉 아름다운 목장 선정체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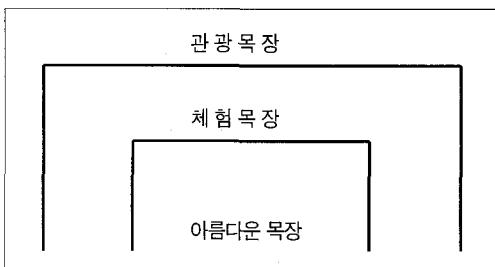
(단위:백만원, 개소)

구 분	체 점 항 목	내 용
계획서(10점)	계획서 충실통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계획서의 사업명, 세부내용, 비용산출 근거의 타당성
목장관리(40점)	가축사육밀도	사육시설 내 젖소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정화처리	젖소 분뇨를 정화처리시설(톱밥시설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조사료포 활용	젖소분뇨를 자가, 임대 등 조사료포에서 처리여부
	전업형	목장경영의 전업여부
청결도(30점)	축사(운동장포함)	
	젖소	청결여부
	착유실	
젖소관리(20점)	유질우수	유질성적(세균, 체세포 등)
	젖소체형	체형 우수
총점(100점)	10개항목	

에 대한 개선의지가 아주 높은 목장들이다. 향후 선정위원회에서 목장을 방문하게 되면, 〈표 1〉과 같은 채점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된다. 8월과 9월에 선정목장에 대한 ‘목장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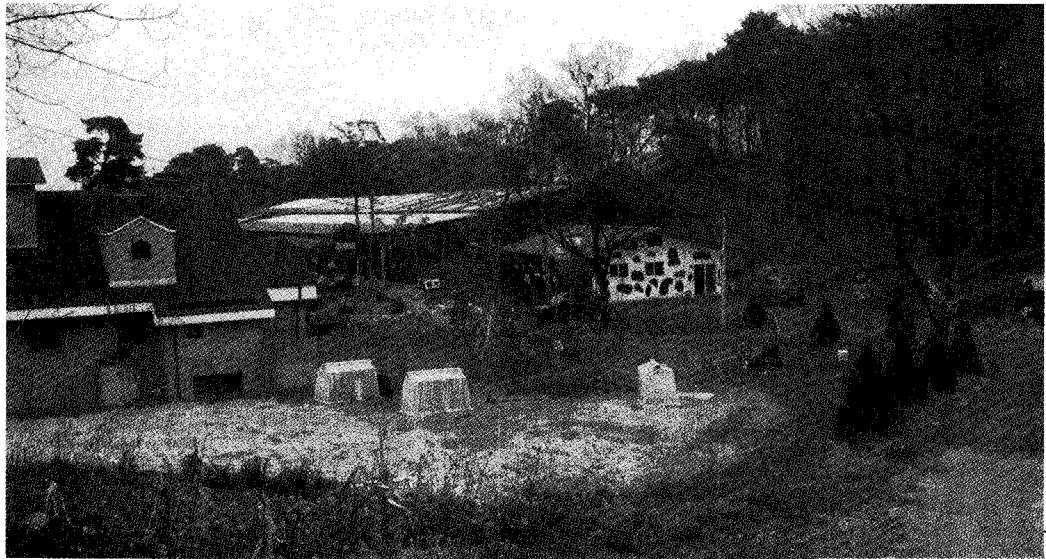
〈표2〉 향후 개념



컨설팅과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10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소비자단체 등의 견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은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의 최종 지향점이다. 따라서 낙농 가가 만족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결과를 분석하여 재선정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2차년도인 2006년 이후부터는 체험목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문적인 관광목장을 육성 할 계획이다. 또한 조경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목장조경 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다.〈표 2참조〉

**소비자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은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의 최종지향점
아생화 3종 1천개 목장에 공급, 아름다운 목장 사진 콘테스트 개최 예정**



이를 추진 할 추진위원 역시 목장을 경영하는 낙농가는 물론, 다년간 목장 환경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던 조경전문가를 영입,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목장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전적으로 이 사업은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그리고 장기간의 낙농경영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보기 좋은 목장을 넘어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싶은 목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되어야 한다. 그만큼 낙농에 대한 프로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4가지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관점이 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조합은 지난 5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야생화 씨앗 3종”을 1천여 개 목장에 공급한 바 있다. 대금계국, 원추천인국, 코스모스 등 3종의 다년생 야생화를 100g 단위로 비닐 포장해 원하는 목장에 신청을 받아 공급했다. 목

장 진입로 또는 우사주변, 분뇨처리장 주변 등에 파종해도 적응력이 강한 화종(花種)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렇게 파종해서 가꾼 꽃들이 있는 목장의 모습을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제고하고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진 콘테스트”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사진전의 우선 선발기준은 꽃씨 가꾸기 전후를 비교한 사진 또는 파종부터 개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이다. 응모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향후 우리 조합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게 될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사업’이 우리나라 낙농인과 산업에 긍정적인 반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 낙농, 웰빙(Well-being)! 그린 팜(Green-Farm)! ’을 일구는데 표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낙농인 모두의 협조와 관심을 기대한다. ☺